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건널목 못미처 세탁소에서 우회전하세요.”라는 문장에서 ‘못미처’의 표기가 헛갈립니다. 사전은 ‘못미처’가 한 단어인 명사로 나와 있고, 신문의 제목을 보니 “올해 국내 경기 기대에 못 미쳐”로 쓰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잘못 쓰고 있는 것인가요? 혹시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라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임혜진, 서울시 관악구 봉천1동)

답 ‘못미처’와 ‘못 미쳐’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사 ‘못미처’는 ‘일정한 곳까지 채 이르지 못한 거리나 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못 미쳐’와는 그 쓰임이 다릅니다. “건널목 못미처 세탁소에서 우회전하세요.”는 “건널목 못미처의 세탁소에서 우회전하세요.”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구성으로 ‘건널목 못미처에 있는 세탁소’를 가리키므로 ‘못미처’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건널목을 못 미쳐서 세탁소에서 우회전하세요.”로 이해하면 ‘못 미쳐’로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사문에 “올해 국내 경기 기대 못미처”라는 제목이 있다면 그때는 “올해 국내 경기 기대(에) 못 미쳐”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의 ‘못 미쳐’는 부정을 나타내는 ‘못’과 ‘미치다’의 활용형 ‘미쳐’가 쓰인 경우입니다.

- (1) ㄱ. 우리 집은 큰길 못미처(에) 있다.
ㄴ. 이번 시험은 내 기대에 못 미쳐(*에) 속상했다.

명사의 ‘못미처’와 부사에 동사의 활용형이 이어진 ‘못 미처’의 차이를 쉽게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은 조사를 결합해 보는 것입니다. 명사 ‘못미처’는 “우리 집은 큰길 못미처(에) 있다”, “나는 영희를 용산역 못미처(의) 정류장 앞에서 만났다.” 따위처럼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데 반해, ‘못 미처’는 “이번 시험은 내 기대에 못 미처(*에) 속상했다”, “숨씨는 기술자에 못 미처(*에) 제대로 모양이 나지 않았다.” 따위처럼 조사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사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 있지만, 동사의 활용형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 없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혼동하기 쉬운 다른 예로는 ‘너머’와 ‘넘어’가 있습니다. ‘너머’는 명사로 공간적이 위치를 나타내고 ‘넘어’는 ‘넘다’라는 동사의 어간에 어미 ‘-어’가 연결된 것입니다.

(2) ㄱ. 물이 넘어 수도꼭지를 잠갔다.

ㄴ. 산 너머 마을에 홍수가 났다.

(2ㄱ)에서 ‘넘어’로 적는 것은 동사 ‘넘-’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 (2ㄴ)의 ‘산 너머 마을’은 ‘산’을 넘는 동작과 전혀 관련 없이 산 뒤에 있는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산 너머’로 적어야 옳습니다.

[물음] 가을에 결혼을 하는데, 아내의 오빠가 저보다 한 살 어려서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 아내의 오빠는 ‘형님’이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오빠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의 정확한 호칭어를 알고 싶습니다.

(최승우, 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

답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형님’, ‘처남’을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아내의 오빠에 대한 전통적인 호칭어는 ‘처남’으로 처가 쪽의 서열에 관계없이 연령순으로 위아래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처남과 매부가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 순위 처남을 ‘형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아내의 오빠를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낡은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표준 화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존중하여 아내의 오빠에 대하여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아내의 오빠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옛날처럼 ‘처남’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반면 아내의 남동생은 부르는 말은 전통을 따라 ‘처남’이라고 하고 손아래 처남의 나이가 아주 어리면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물음 “누가 남의 귀둥이를 나무라.”라는 문장이 웬지 어색해 보입니다. ‘나무라’와 ‘나무래’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이미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답 “누가 남의 귀둥이를 나무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은 동사 ‘나무라다’의 어간 ‘나무라-’에 종결 어미 ‘-아’가 결합한 형태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1)의 문장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나무랬다’가 아닌 ‘나무랐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1) 노인은 젊은이의 무례한 행동을 짐작게 나무랐다.

이와 비슷한 예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틀리게 쓰는 ‘바래’, ‘바랬다’ 따위를 들 수 있습니다. ‘나무라’, ‘나무랐다’ 따위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바라다’의 어간 ‘바라-’에 어미 ‘-아’, ‘-았-’ 따위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바라’, ‘바랐다’ 따위로 써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리킬 때 쓰는 ‘바램’ 또한 잘못입니다. 이 말 대신 ‘바람’으로 써야 합니다. 이 말도 동사 ‘바라다’에서 파생된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 (2) 가. 네가 성공하길 **바래**(→**바라**).
 나. 어머니는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랬다**(→**바랐다**).
 다. 나의 **바램**(→**바람**)은 네가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는 거야.

물음 얼마 전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양말(洋襪)’이 한자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자대로 풀이하면 ‘서양 버전’이라는데 이처럼 ‘양-(洋)’이 붙어서 된 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한걸,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답 ‘양말’을 고유어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말’은 한자어입니다. 서양에서 버전과 비슷한 것이 들어오니까 버전을 뜻하는 ‘말(襪)’에 ‘양-(洋)’ 자를 붙여서 ‘양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국어에는 개화기 이후에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물건의 이름에 ‘양-’을 붙여 이름을 지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길는 데 쓰는 질그릇의 하나가 ‘동이’인데, 서양에서 이 동이와 비슷한 것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양-’ 자를 붙여 ‘양동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라든지, 서양에서 받아들인 잣물이라는 뜻으로 ‘양잣물’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 그 예입니다. 이 밖에도 ‘양궁(洋弓), 양단(洋緞), 양담배(洋--), 양란(洋蘭), 양배추(洋--), 양버들(洋--), 양변기(洋便器), 양복(洋服), 양송이(洋松栢), 양식(洋食), 양약(洋藥), 양옥(洋屋), 양은(洋銀), 양장(洋裝), 양재기(洋--), 양주(洋酒), 양철(洋鐵), 양초(洋--), 양코(洋-), 양과(洋-), 양화점(洋靴店), 양회(洋灰)’ 등 매우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양-’ 자뿐만 아니라 ‘호-(胡)’, ‘당(唐)’, ‘왜(倭)’가 붙어서 된 말들도 여럿 있습니다. ‘호-’가 붙은 말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뜻을 가지며 ‘호고추(胡--), 호두[<호도(胡桃)], 호떡(胡-), 호밀(胡-), 호배추(胡--), 호주머니(胡---), 후추[<호추(胡椒)], 호콩(胡-)’ 따위의 예가 있습니다. ‘당’이 붙은 말은 중국의 당나라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며 ‘당나귀(唐--), 당닭(唐-), 당면(唐麵), 당수(唐手)’ 따위의 예가 있습니다. ‘왜’가 붙은 말은 일본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며 ‘왜간장(倭-醬), 왜감자(倭--), 왜낫(倭-), 왜모시(倭--), 왜부채(倭--), 왜요리(倭料理), 왜철쭉(倭--), 왜콩(倭-), 왜뜰(倭-)’ 따위의 예가 있습니다.

물음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무지개’도 곧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무지개’가 고유어인 것 같기는 한데 어원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호준, 서울시 강서구 방화2동)

답 15세기 문헌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무지개’를 뜻하는 말로 ‘므지개’라는 표기가 발견됩니다. ‘므지개’는 ‘므’와 ‘지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므’는 ‘물 [水]’에서 ‘ㄹ’이 탈락한 것입니다. ‘바늘질’이 ‘바느질’이 되는 것처럼 국어에서는 ‘ㄹ’이 ‘ㅈ’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물지개’가 ‘므지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므’는 후대에 원순 모음화 현상에 의해 ‘무’가 됩니다.

다음으로 ‘지개’는 등에 짐을 질 때 사용하는 지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문을 뜻하는 ‘호(戶)’를 가리키던 옛말입니다. 그런데 ‘호(戶)’의 윗부분은 대개 무지개의 윗부분처럼 둥근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유사성에 근거하여 ‘물로 된 문’이라는 뜻으로 ‘므지개’라 이름 붙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개’가 ‘지개’로 변한 것은 19세기 후반으로,

비어두 음절에서 ‘ㄱ’와 ‘ㅂ’의 소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정리하면 ‘물 [水] + 지개(戶)’가 합쳐져서 ‘물지개’가 되었던 것이 ‘ㅈ’ 앞에서 ‘ㄱ’이 탈락하여 ‘므지개’가 되고, 이것이 원순 모음화를 일으켜 ‘무지개’가 되고, 다시 ‘ㄱ’과 ‘ㅂ’의 중화 현상으로 오늘날의 ‘무지개’가 된 것입니다.

[물음] “반장이 친구들에게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거두었다/걸었다.”에서 ‘거두었다/걸었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임종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답] 우리말에서 용언 ‘가지다’, ‘디디다’, ‘잡수시다’, ‘머무르다’ 따위의 준말인 용언 ‘갓다’, ‘딛다’, ‘잡숫다’, ‘머물다’ 따위가 활용할 때에는 대개 모음 어미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즉, ‘갓고, 갓네, 갓습니다’, ‘딛고, 딛네, 딛습니다’, ‘잡숫고, 잡숫네, 잡숫습니다’, ‘머물고, 머무네, 머뭍니다’ 따위처럼 자음 어미와는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데 반해 ‘갓아, 갓으면, 갓음, 갓은’, ‘딛어, 딛으면, 딛음, 딛은’, ‘머물어’ 따위처럼 모음 어미와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 (1) ㄱ. 갓고, 갓네, 갓습니다, *갓아, *갓으면, *갓음, *갓은
- 나. 딛고, 딛네, 딛습니다, *딛아, *딛으면, *딛음, *딛은
- ㄷ. 잡숫고, 잡숫네, 잡숫습니다, *잡수어, *잡수면, *잡숨, *잡순
- ㄷ. 머물고, 머무네, 머뭍니다, *머물어, 머물면, 머뭍, 머문

특기할 점은 준말 가운데 ‘머물다’와 같이 어간이 받침 ‘ㄱ’으로 끝나는 준말의 용언은 위 (1ㄷ)의 ‘머물면, 머뭍, 머문’ 따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모음 어미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2)의 용언 ‘건들다(‘건드리다’의 준말), 까불다(‘까부르다’의 준말) 서둘다(‘서두르다’의 준말), 서툴다(‘서투르다’의 준말)’ 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 (2) ㄱ. 건들고, 건드네, 건듭니다, *건들어, 건들면, 건듭, 건든
 ㄴ. 까불고, 까부네, 까봅니다. *까불어, 까불면, 까뭉, 까분
 ㄷ. 서들고, 서두네, 서듭니다, *서들어, 서들면, 서듭, 서둔
 ㄸ. 서툴고, 서투네, 서춍니다, *서툴어, 서툴면, 서뭉, 서툰

그러나 모든 준말의 용언이 활용할 때 모음 어미와의 결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용언 ‘뵈다’, ‘뻐다’ 따위는 각각 용언 ‘보이다’, ‘빼앗다’ 따위의 준말이지만 모음 어미와의 결합도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위 (1)~(2)와 아래 (3)의 예를 고려하면 준말이 본딤말과 비교하여 어간의 형태가 크게 다르면(즉, 본딤말과 준말의 어간이 받침 유무에 있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모음 어미와의 결합이 부자연스러운 데 반해 크게 다르지 않다면(즉, 본딤말과 준말의 어간이 받침 유무에 있어 동일한 경우) 모음 어미와의 결합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 (3) ㄱ. 뵈고, 뵈네, 뵈니다, 뵈어/뵈, 뵈면, 뵈
 ㄴ. 뻐고, 뻐네, 뻐습니다, 뻐어, 뻐으면, 뻐음, 뻐은

그런데 아래 (4)의 예는 본딤말과 준말의 어간이 받침 유무에 있어 동일하지만 모음 어미와의 결합이 자연스러워 이러한 잠정적인 결론에 어긋납니다. 즉, 용언 ‘걸다, 자그맣다, 마지않다’ 따위는 각각 용언 ‘거두다, 자그마하다, 마지않다’ 따위의 준말로서 위 (1)의 예처럼 준말과 본딤말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만 (1)과 달리 모음 어미와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 (4) ㄱ. 걷고, 걷네, 걷습니다, 걷어, 걷으면, 걷음, 걷은
 나. 자그맣고 자그마네, 자그맣습니다, 자그매, 자그마면, 자그맣,
 자그만
 ㄷ. 마지않고 마지않네, 마지않습니다, 마지않아, 마지않으면, 마지
 않음, 마지않은

결국 준말의 용언이 활용할 때에 대개 모음 어미와 결합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를 일반화하여 규칙화하긴 힘듭니다. 위 (4)의 예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질의하신 예의 ‘거두다’와 ‘걷다’도 본딤말과 준말의 관계에 있는 말로서 위 (4ㄱ)에서 보는 것처럼 모음 어미와의 결합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예에서 ‘거두었다’, ‘걸었다’는 각각 용언 ‘거두다’, ‘걷다’의 활용형으로서 모두 맞는 말입니다.